



페더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Wimbledon 테니스 대회 잔디 코트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나달과 페더러는 영국 런던 Wimbledon의 올림플랜드 클럽에서 진행 중인 올해 Wimbledon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파운드·약 558억원) 남자 단식 4강에 나란히 진출, 12일(현지시간)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두 선수가 Wimbledon에서 대결한 최근 사례는 2008년 결승으로 당시 나달이 3-2(6-4 6-4 6-7<5-7> 6-7<8-10> 9-7)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맞대결로 나달은 Wimbledon에서 생애 첫 우

“또 너냐”

Wimbledon 테니스 4강서 맞대결
 통산 40번째...나달, 9승 앞서

승을 차지했고, 페더러는 6년 연속 우승이 좌절되는 아픔을 맛봤다.
 특히 2008년 결승전은 경기 진행 시간만 4시간 48분이 걸렸고, 비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후 2시 35분에 시작한 경기가 밤 9시 16분에 끝났을 정도로 팬들의 기억에 생생한 명승부로 남아 있다.

나달

페더러와 상대 전적에서 24승 15패로 앞서 있는 나달은 8강전에서 샘 퀘리(65위·미국)를 3-0(7-5 6-2 6-2)으로 완파했다.
 페더러는 니시코리 게이(7위·일본)에게 3-1(4-6 6-1 6-4 6-4)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합류했다. 특히 이날 승리는 Wimbledon에서만 개인 통산 100승째여서 의미를 더했다.
 통산 40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된 나달과 페더러는 지난달 프랑스오픈 4강에 이어 또 메이저 대회 4강에서 마주 섰다.
 지난달 프랑스오픈 4강에서는 나달이 3-0(6-3 6-4 6-2)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광주FC 발끝, 새 역사 쓴다

14일 K리그2 서울이랜드전
 19경기 무패·6연승 도전
 펠리페·여름 등 공격루트 다양
 0.44점대 실점...센터백도 든든
 승리면 리그 최다무패·팀 최다승 경신



광주FC가 14일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K리그2 단일시즌 최다 무패 기록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3월3일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여름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FC의 발끝이 새로운 기록을 겨냥한다.
 광주는 오는 14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랜드FC와 2019 K리그2 1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광주는 2위 부산아이파크와 승점 7점 차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독주 체제에 나섰다.
 또 전반기를 장단 첫 5연승으로 마무리한 광주는 12승 6무라는 성적으로 K리그2 최다 무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17시즌 경남FC의 18경기 연속 무패기록이 K리그2 최고 기록이다.
 광주는 이번 원정을 통해서 새로운 무패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광주가 서울이랜드에 패하지 않는다면 K리그2 역사가 달라진다. 만약 승리로 무패행진을 잇는다면 광주의 연승 기록은 '6'으로 늘어났다. 역시 팀 최다 연승 기록도 달라진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라있다.
 광주는 전반기 18경기를 소화하면서 29득점 8실점이라는 공수의 밸런스를 자랑했다.
 '해결사' 펠리페가 14경기에서 14골을 넣으면서 11골을 기록한 부산 이정협을 따돌리고 득점 1위를 지키고 있다.
 아슬마토프와 이한도가 이끄는 센터백 라인에 18경기 8실점, 0.44점대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다. 11경기는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터운 스쿼드가 원동력이 됐다.
 주포인 펠리페가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결장했던 4경기에서 여름, 이도민, 김정환 등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3승 1무를 기록했다.
 '위기는 기회'가 됐고 광주는 득점 다변화와 로테

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슬마토프와 박정수 등이 자리를 비우자 기회를 노리던 홍준호와 여봉훈이 투입돼 1-0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여봉훈은 2017년 전북전(1-0 승) 이후 2년여 만에 골을 넣으며 결승 골의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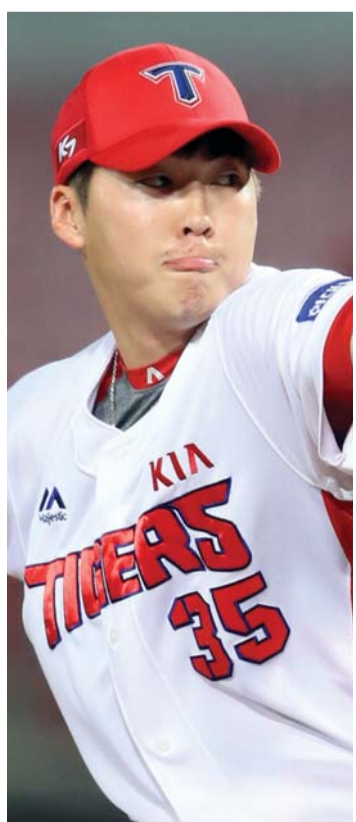
최후의 보루인 골키퍼 자리에서도 탄탄한 스쿼드가 가동됐다.
 베테랑 이진형이 개막 후 4경기를 2실점(3승 1무)으로 막으면서 초반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어줬고, 이진형이 부상으로 빠진 뒤에는 윤평국이 14경기 6실점으로 뒤편을 무뎠으며 무패행진을 이어왔다.

광주는 서울이랜드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2무 무패로 앞서있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는 등 2연승과 함께 5득점 2실점으로 우세를 보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최하위의 서울이랜드가 후반기 분위기를 위

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에이스 쿠티뉴(12경기 7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습을 주의해야 한다.
 광주가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기본 좋은 승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문경찬



하준영

이제 ‘스타’라고 불러주오

박찬호·문경찬·하준영 KBO 올스타...KIA 저조한 성적에 팬 투표 '0'

KIA 타이거즈의 문경찬·박찬호·하준영이 '별들의 잔치'에 참가한다.
 KBO가 11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감독 추천선수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한화 한용덕 감독이 이끄는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의 문경찬·하준영·박찬호와 함께 최재훈·정은원·호잉(이상 한화), 김상수·요키시·샌즈(이상 키움), 루친스키·원종현(이상 NC)·유강남(LG)이 감독추천선수로 선발됐다.
 올 시즌 KIA의 '희망'으로 떠오른 문경찬, 하준영, 박찬호의 첫 올스타전이다.
 드림올스타의 SK 영경열 감독은 김강민(SK), 린드블럼·이영하·박세혁·류지혁(이상 두산), 장시환·나종덕·민병현(이상 롯데), 알칸타라·이대은·정성근(이상 KT), 이학주(삼성)를 선택했다.
 해외유턴파인 이대은과 이학주는 KBO 리그에

데뷔한 첫 시즌부터 올스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올 시즌 베스트12와 감독추천 선수들을 포함해 가장 많은 올스타 선수를 배출한 구단은 LG다.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로 원스·정우영·고우석·김민성·김현수·이천웅·이형종 등 7명이 베스트 멤버가 됐고, 감독 추천으로 유강남이 합류하면서 총 8명의 LG선수가 올스타 무대에 오른다.
 뒤를 이어 SK가 7명, 두산과 키움은 나란히 6명, 삼성, KT, NC 4명이다.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KIA와 한화, 롯데는 감독 추천으로 각각 3명씩 선정됐다.
 한편 KBO리그의 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올스타전은 오는 19일과 20일 잠원NC파크에서 열린다. 팬 사인회를 포함해 홈런레이스, 퍼펙트피처, 슈퍼레이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레이디스데이’

14일 대전시티즌전 이벤트 다채

전남드래곤즈가 14일 대전전에서 여성팬을 위한 '레이디스 데이'를 개최한다.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양파 선물도 준비했다.
 전남은 오는 1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대전시티즌과의 홈경기를 '레이디스 데이'로 정하고, 여성 팬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이날 여성 관중들에게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주고 선착순 1000명에게는 이니스프리 광양중점점과 토니모리 광양중점점에서 후원한 여름 바캉스 파우치(5종 샘플)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22명의 여성팬이 이날 경기의 에스코트를 맡는다.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선물과 이벤트도 마련됐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 양파 1망(2kg)을 관중 5000명에게 제공한다. 지역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동시에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